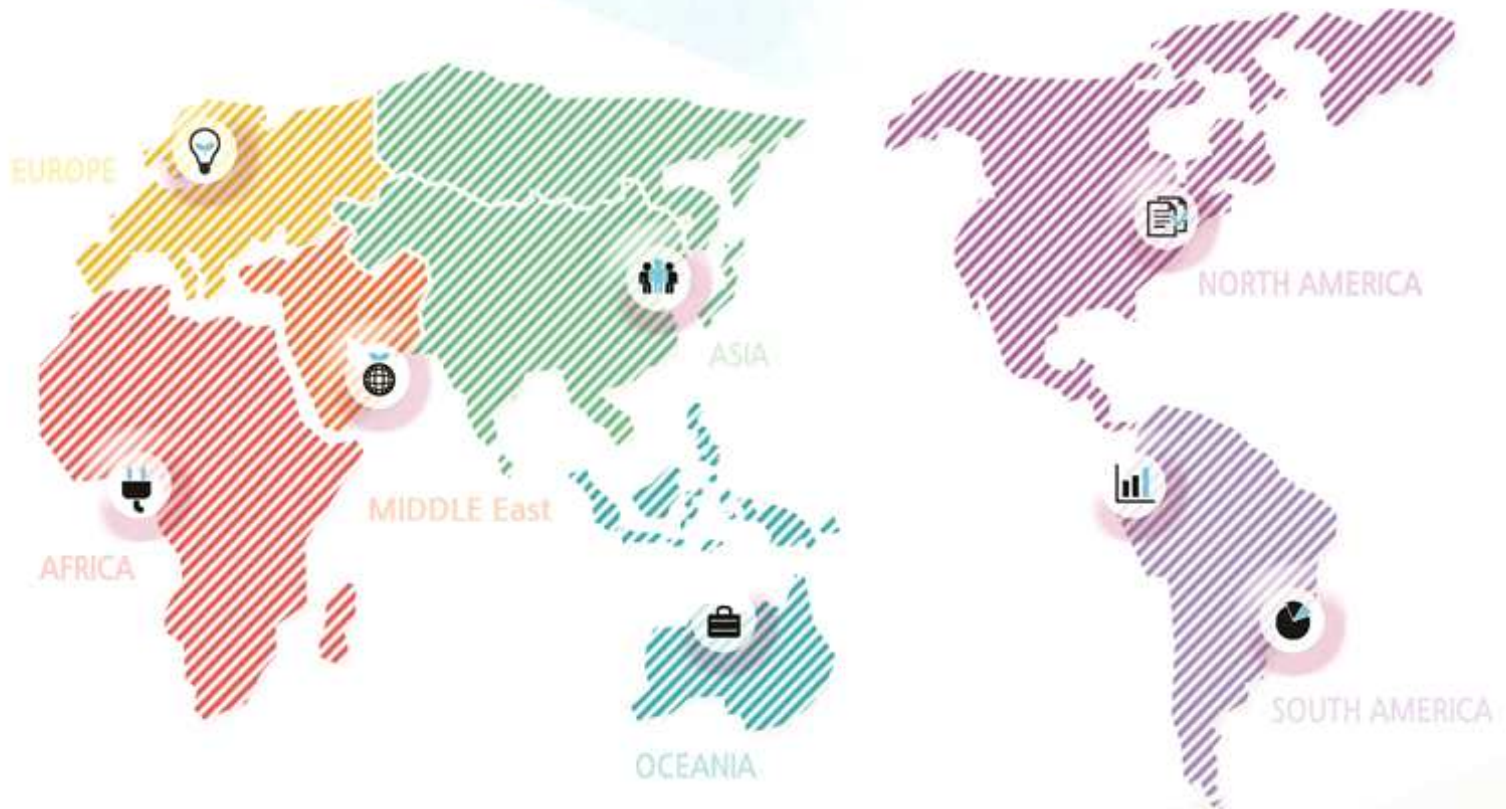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유가하락이 산유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 |
|----|----------------------|
| 2 | 1. 재정수입 급감 |
| 5 | 2. 프로젝트 지연·취소 사례 속출 |
| 7 | 3. 현지화 가치급락 |
| 8 | 4. 산유국 수입시장 위축 |
| 11 | 5. 저가 소비재 선호현상 발생 |
| 11 | 6. 산업다각화 관련품목의 수요 확대 |

II. 우리의 대응전략

- | | |
|----|------------------------------|
| 13 | 1.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전략 |
| 14 | 2. 프로젝트 진출은 국별로 신중한 대처 필요 |
| 14 | 3. 산유국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등 기회분야 발굴 |
| 15 | 4. 경제 위기지역 투자진출 기회 포착 |

[참고자료] 현지 바이어 · 진출기업 반응(인터뷰) / 16

요 약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하락한 국제유가는 '15년 5월 현재 배럴 당 50~60달러 대의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저유가의 지속은 원유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산유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유가하락은 우선, 산유국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다. 대부분 산유국이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가하락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산유국 정부는 세금·공공요금 인상, 원유증산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가하락은 현지 통화 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달러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유판매대금 감소로 인한 현지 달러수입의 감소는 현지화 가치의 폭락 사태를 낳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지 수입물가의 상승과 수입시장의 위축은 당연해 보인다. 현지 소비자도 반응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저렴한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저가의 중국산이 선호되는 이유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유가하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대부분 프로젝트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오일머니가 쌓여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프로젝트의 연기나 취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중한 대처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가하락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출상품이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가하락으로 저가 중국산에 시장을 내주는 우리 상품들이 많아질 것인데, 잃은 만큼의 시장을 선진국들이 차지하던 곳에서 새롭게 확보하자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고부가가치화 전략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한 유가하락으로 생기는 기회분야들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이번 유가하락으로 산유국들의 산업다각화 추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틈새시장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신중한 대처와 투자진출과 같은 적극적인 현지 진출도 고려할 시점이다.

I 유가하락이 산유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유가하락은 △재정수입 급감 △프로젝트 지연·취소 △현지화 가치급락 △산유국 수입시장 위축 △저가 소비재 선호 △산업다각화 관련품목 수요 확대 등 산유국 경제에 다양한 현상을 낳고 있음

1. 재정수입 급감

□ 대부분 산유국 재정타격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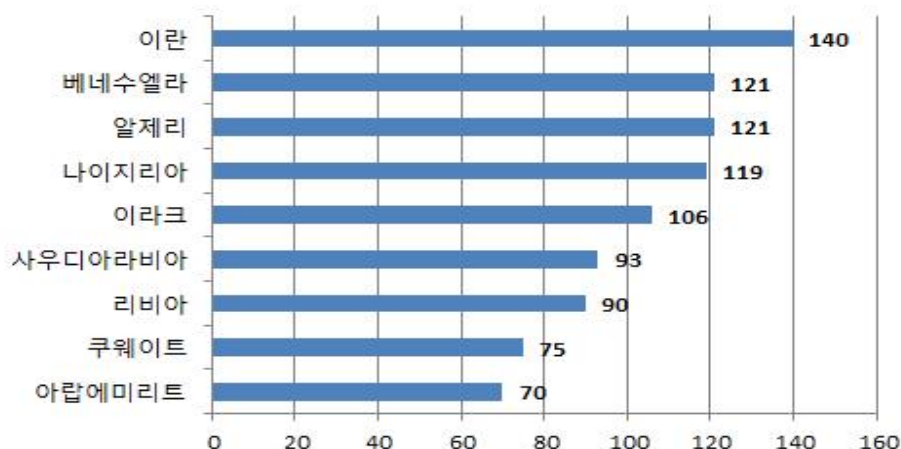
- 국제 유가하락은 산유국 국가재정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중
 -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을 원유판매 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산유국 대부분의 재정 위축이 불가피한 상태
 - * 재정상태가 양호한 국가는 그 동안 쌓아 놓은 오일머니가 풍부한 UAE·카타르·쿠웨이트 등 중동 일부국가에 불과

< 산유국별 원유 의존도 (자료: Bloomberg·WSJ) >

- (이란) 국가예산의 50%를 원유에 의존
- (나이지리아) 정부수입의 75%, GDP의 35%가 원유 수출
- (러시아) 전체 수출의 68%, 국가예산의 50%를 원유에 의존
- (베네수엘라) 정부수입의 65%, GDP의 25%가 원유 수출

- '15.2~3월 평균 유가는 산유국 균형재정을 위한 유가보다 낮은 배럴당 50달러대 수준

< 주요 산유국 균형재정을 위한 유가(단위 : 배럴당 달러) >



자료 : 도이체방크, 2014년 기준

-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기반 취약 산유국의 타격은 극심할 전망
- * 주요 에너지연구소가 예측한 '15년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60달러대로 저유가 고착 우려

< '15년 연평균 국제유가 전망(단위: 배럴당 달러) >

구분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미 국 에너지정보청(EIA)	석유산업 연구소(PIRA)
WTI	59.2	62.8	58.4
Brent	66.0	68.1	61.5
Dubai	63.95	-	-

o 국별 주요동향

사우디 아라비아	'15년 정부재정 386억 달러 적자 예상(수입 1,907억 달러, 지출 2,293억 달러) · 유가하락의 중장기적 고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지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개발계획은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임 · 단, '14.5월 IMF는 사우디와의 연례경제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현재 정부지출 추세를 감안하면 '15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이라크	원유 판매수익(재정의 95%, 수출의 98% 차지) 감소로 재정적자 불가피 · 이라크 의회는 유가 56달러 기준의 '15년 예산안을 승인('15.1월) · 재정책보를 위한 원유 생산량 확대, IS 반군사태 대응 군비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심화될 전망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재정수입의 50% 차지) 감소로 적자 악화 · '15년 2월 러시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로 1월 4.2% 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카자흐스탄	'15년 국가예산을 약 10%(37억 7,828만 달러) 감축하여 발표
에콰도르	원유에 의존한 재정구조(재정의 30%, 수출의 50% 차지)로 예산 축소 · 정부는 '15년 예산을 3.9% 감축한 348억 9,700만 달러로 조정('15.1월)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의존적 재정구조(수출의 95% 차지)로 유가하락 타격 심화 · '14년 6월부터 나이지리아 원유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수입을 중단해 정부 재정수입 감소 불가피
콩고 민주공화국	원유 수익(수출의 80%, GDP의 60% 차지) 감소로 재정운용에 악영향 · 콩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원유 수출로 보전해왔으나, 최근 유가가 재정운용 적정가인 70달러를 하회하면서 재정적자 확대

□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중

○ 세금 신설·인상,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통한 세수확충

(UAE) 두바이 정부는 '15년 재정수입 재원 중 정부서비스 수수료의 비중을 전년대비 7%p 인상하여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및 벌금 등 인상을 예고

(이란) 세수를 최고 23% 인상을 포함한 '15년 정부예산 편성안 국회 승인('15.3월), 석유·광산시장 등 주요자본 및 자산에 대한 민간양도 시도

(이라크) 세수 확충을 위해 '15년부터 모바일 통신(20%), 항공권 및 자동차(15%), 담배 및 주류(300%) 등에 대해 소비세 도입

(쿠웨이트) 각료회의 및 최고기획개발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휘발유(디젤, 케로신) 보조금 일부 삭감을 결정('14.10월)하면서 연 10억 달러 예산절감 효과 기대

(오만) '15.1월부터 산업용 가스 가격 2배 인상, 오만 석유정제·유통공사(ORPIC)의 지분을 15~20% 상장('16년)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 광물 수출세 5%에서 10%로 인상 등

(러시아) '15년부터 차량용 휘발유(평균 17.5%), 주류(알코올 농도 9% 이하는 리터당 25%, 농도 9% 이상은 리터당 20%), 담배(20%) 세금 인상

(나이지리아) 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는 사치품(전용기·요트·고급자동차 등)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향후 3년간 약 30억 달러를 거둬들일 예정

* 품목별 특별소비세 : 자가용 비행기 10%, 고급요트 39%, 연방수도지역 내 고급주택 1%

○ 기존 원유생산의 유지 또는 증산을 통한 국가재정 확보

(사우디아라비아) 알리 알-나يمي(Ali Al-Naimi) 사우디 석유장관은 원유 감산 의향이 없으며 수요에 따라 증산도 가능하다고 발언('15.3월)

* '15.2월 사우디는 일일 985만 배럴 원유생산으로 '13.9월 이후 최고치 기록

* IMF('15.1월)는 지속되는 저유가로 중동 석유수출국의 경제적 손실이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충분한 오일머니로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UAE) 수하일 알 마주라이(Suhail Al Mozrouei) UAE 에너지부 장관은 OPEC의 원유 생산량 유지 결정을 지지하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표명('15.1월)

* '17년까지 일일 350만 배럴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 예정

(이라크) 로우쉬 누리 샤웨이즈(Rowsch Nuri Shaways) 이라크 부총리는 원유 생산량 증가와 수출 확대를 정부재정 손실 해결의사를 밝힘('15.1월)

* '14.12월 이라크는 하루 295만 배럴의 원유 수출로 '80년 이후 최고치 기록

(러시아) 알렉산더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15년 원유 생산량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14.12월)

* '14년 12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066만 6천 배럴로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

2. 프로젝트 지연·취소 사례 속출

□ 대규모 예산투입 프로젝트의 추진 지체 예상

- 유가하락이 국가재정 감소로 이어지면서 정부발주 대규모 예산투자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지연이나 취소 사례가 발생 중
 - * 중동發 저유가의 영향으로 '15년 1분기 우리 건설사의 對 중동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70.7% 감소한 40.7억 달러 기록(해외건설협회)
 - * 건설업체는 유가하락 이후 취소된 중동 건설 프로젝트 규모를 총 260억 달러로 추정
- 특히, 투기성 개발사업 등 불요불급형 개발 프로젝트의 취소 가능성이 높음
- 프로젝트 지연·취소 사례

사우디 아라비아	일부 발주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재협상 또는 연기할 예정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발주 계획인 프로젝트 추진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15.1월), 라스 타누라 클린 퓨얼 프로젝트(CFP) 입찰 연기 지속
이라크	IS사태의 지정학적 위험과 재정부족으로 프로젝트 시장 축소 불가피 · 단, 우리기업이 수주한 카르발라 정유소 프로젝트는 '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예정대로 공사 추진 중
러시아	유가하락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 루블화 가치하락 등으로 관련 정부예산과 민간 발주처의 자금력 대폭 감소 ·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부 지역 쓰레기 처리장 사업 파이낸싱 지연, 지방공항 개선사업 등 컨세션 및 민관합작 투자자 물색 지연 등
카자흐스탄	정부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예산 지출 계획 재검토 진행 · '17년 아스타나 엑스포와 일부 주요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한 신규 사업은 추진을 자제할 예정
아제르바이잔	유럽올림픽('15.6월) 관련사업을 제외한 신규 프로젝트는 중단 조치 · 아제르바이잔 수력청 사옥 건설, 바쿠 지하철 설계 등 프로젝트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 발생
나이지리아	현지진출 다국적 석유기업 셸(Shell), 엑손모빌(Exxon Mobil) 등은 유가하락 이후 투자지연 등을 주시하며 프로젝트 참여 면밀히 검토 · 유가하락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 : Egina FPSO 프로젝트, Nigeria LNG Train7 프로젝트, Olokola LNG 프로젝트 등

- 다만, 석유 비축자금이 충분한 UAE·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의 경우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중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순방 이후 대형 건설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제2의 중동 붐' 기대

UAE	그간의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추진이 다소 안정적 · 그러나,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국가재정 감소는 본격적인 원전공사와 '20년 두바이엑스포 대규모 공사수주를 앞둔 우리 건설업체에는 악재
쿠웨이트	KNPC(국영정유회사) 무타이리 사장은 CFP(기존정유공장 시설개선사업), NRP(알주르 4차 정유공장 신설), 알주르 지역 LNG 수입터미널 등 핵심 프로젝트는 유가하락과 관계없이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14.11월) · 단, 140억 달러 규모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NRP) 추진 과정에서 발주처의 예상 발주금액보다 수주처 제안금액이 42억 달러 상회해 재입찰을 검토하게 되면서 유가하락 영향 가시화
알제리	현재까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없으며, '15년 예산에 반영된 발주 예정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
오만	지난 10여 년간의 오일머니로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 기존 예산에 반영된 프로젝트와 의료·IT 분야의 사업은 변경 없이 추진할 예정 · 오만 수처리 전문기업 Haya Water는 중장기 수처리 마스터플랜을 발표('14.12월)하면서 향후 5년간 45억 달러 규모 사업 추진 예정

□ 자금유치 활동 확대

- 일부 산유국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재원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차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부자금 유치 활동 전개 중

(이라크) 이라크 정부는 IS사태와 예산적자 등의 영향으로 당초 준비하던 상당수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 지출이 아닌 **민간투자**로 전환하거나 **연지급**(Deferred payment) 등으로 전환 추진 중

(에콰도르) 정부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대규모 차관 도입**

- * '15년 1월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중국으로부터 75억 달러 차관 확보
- * '00~'13년까지 에콰도르는 약 99억 6,200만 달러의 중국 차관을 도입한 바 있음

3. 현지화 가치 급락

□ 저유가는 현지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美 양적완화 종료('14.4분기) 이후 지속된 달러강세 현상에 더해, 원유 판매 대금 감소로 인한 달러화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산유국의 현지화 가치 급락
 - 최근 1년 사이 현지화의 가치하락은 러시아에서 68.7%로 가장 컸으며, 알제리 22.7%, 리비아 10.2%, 쿠웨이트 6.2%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에서는 고정 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산유국 달러대비 월평균 환율 추이 및 평가절하율 >

(단위 : 달러대비 현지화)

국가명	'14.4월	'14.5월	'14.6월	'14.7월	'14.8월	'14.9월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15.2월	'15.3월	평가절하율
사우디 (리알)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고정 환율
UAE (디르함)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3.6731	
오만 (리알)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이라크 (디나르)	1,167.19	1,163.70	1,163.84	1,165.00	1,164.47	1,164.35	1,163.00	1,163.39	1,165.23	1,151.87	1,170.03	1,171.12	0.3%
쿠웨이트 (디나르)	0.28	0.28	0.28	0.28	0.28	0.29	0.29	0.29	0.29	0.29	0.30	0.30	6.2%
알제리 (디나르)	78.63	78.90	79.33	79.51	80.02	81.21	83.49	84.81	86.89	89.10	93.92	96.45	22.7%
리비아 (디나르)	1.24	1.23	1.21	1.23	1.23	1.22	1.24	1.22	1.22	1.26	1.36	1.37	10.2%
러시아 (루블)	35.68	34.87	34.41	34.71	36.18	38.00	40.97	46.08	55.77	64.16	64.51	60.20	68.7%

자료 : Tenfore社 제공 데이터

○ 국별 현지화 가치하락 주요동향

알제리	저유가에 동조한 달러화 가치절상이 심화되면서 수입비용 부담 · '15.3월 달러대비 환율은 95.45디나르로, '14.4월 평균환율(78.63디나르) 대비 22.7% 평가절하 · 반면, 유로 대비 현지화 환율은 전년대비 큰 변동 없음
리비아	민병대간 무력충돌에 따른 정세불안, 원유수출 감소로 달러가 부족 · '15.3월 달러대비 환율은 1.24디나르로, '14.4월 평균환율(1.37디나르) 대비 10.2% 평가절하
러시아	'유가 하락 → 루블화 하락 → 수입 감소'의 패턴이 지속 · '15.3월 달러대비 환율은 60.20루블을 기록해 '14.4월(35.68루블)보다 68.7% 상승, '15.1월 물가상승률은 15%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심화

□ 정부차원의 평가절하 시행하기도

- 일부국가는 정부예산 부족 해소, 수입억제 등의 목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 하락을 정책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아제르바이잔) '14년 8월부터 유가하락 재정 부족분을 국부펀드(SOFAZ)로 충당해 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15년 2월 달러대비 **현지화 34% 평가절하 단행**

*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공식환율을 달러당 0.7844마나트에서 1.05마나트로 조치('15.2.21)

(베네수엘라) SIMADI(한계환율체제)라는 **시장환율제도를 도입**('15.2월)하여 **현지화의 실질적 평가절하**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시도

* SIMADI 시행은 기존의 외환경매시장(SICAD II)에 비해 달러당 환율이 약 3배 이상(50볼리바르 → 170볼리바르)의 절하 효과로 재정수입 확보, 단, 생필품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는 그대로 유지

(나이지리아) 급격한 유가하락에 따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대미환율**을 155나이라에서 168나이라로 **7.7% 상향 조정**('14.11.25)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기준이자율을 12%에서 13%로 인상하고, 시중은행(비정부부문 예치금) 현금 보유 비율은 15%에서 20%로 인상

4. 산유국 수입시장 위축

□ 수입 감소현상 가시화

- 유가하락은 산유국의 재정적자 확대 및 재정지출 축소, 현지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에는 산유국 수입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은 산유국 수입시장에 '14년 4분기 이후부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입 감소는 '15년 상반기 나타날 전망
 - '14년 주요 산유국 수입은 전반적 하락, 중남미·CIS 국가는 수입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중동은 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 '14년 수입 감소국가 : (중남미)베네수엘라, (CIS)러시아·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중동)오만·이라크 등
 - * '14년 수입 증가국가 : (중동)알제리·이란 등
 - 특히, IS사태의 이라크, 서방 경제제재 해제 시점이 결정되지 않은 이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받은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험 국가의 수입 감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유국의 對세계 수입동향 >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지역	국가명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1,637 (5.2)	393 (△3.7)	436 (△0.2)	438 (8.7)	-
	알제리	549 (8.9)	138 (△0.7)	154 (2.7)	141 (10.1)	150 (14.5)
	이란	454 (△14.0)	153 (20.6)	113 (25.0)	132 (24.5)	122 (△6.5)
	오만	343 (22.0)	73 (△12.0)	73 (△14.1)	-	-
	이라크	398 (14.4)	194 (△51.3)			
중남미	베네수엘라	386 (1.8)	92 (△22.4)	81 (△20.3)	108 (△11.8)	105 (△8.2)
	에콰도르	271 (7.5)	64 (△3.0)	68 (△1.4)	70 (△0.1)	73 (10.5)
CIS	러시아	2,870 (△1.2)	669 (5.3)	755 (4.7)	749 (1.5)	686 (△11.6)
	카자흐스탄	304 (13.4)	53 (△10.1)	71 (△7.8)	72 (△11.1)	72 (△15.7)
	아제르바이잔	108 (12.5)	92 (△14.8)			

자료 : ITC, Global Trade Atlas(UAE·쿠웨이트·리비아·콩고·나이지리아 등은 통계 입수 불가)

* 산유국 수출입 2015년 통계 미비로 가장 최근의 수입시장 분석은 어려움

- 한편, 우리나라의 對산유국 수출은 '14년부터 둔화세를 보였고, '15년 1분기 현재 수출 감소 현상 심화 중
 - '14년은 對중남미·CIS·아프리카 산유국 수출이 전반적 하락세
 - '15년 1분기는 對CIS·중동 산유국 수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러시아(△59.3%)의 영향으로 對카자흐스탄(△44.9%), 아제르바이잔(△43.5%) 수출도 동반 하락했으며, 對리비아(△56.3%), 쿠웨이트(△46.1%), 나이지리아(△37.4%) 순으로 수출 감소폭은 확대

< 유가하락 이외의 對산유국 수출 위협요인 >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제이션(현지진출 해외기업에 사우디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정책)' 시행
- (이란) '15.6월 핵협상 최종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시점 불확실
- (오만) 자국제품에 대한 인근 GCC 국가에 무관세 통관 등 관련 인센티브 강화
- (러시아) 건설기계·석유화학·자동차 등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제품 우선선정

< 우리나라의 對산유국 수출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지역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1분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8,828	△3.1	8,288	△6.12	2,293	17.7
	UAE	5,738	△16.4	7,212	25.7	1,528	△21.7
	알제리	1,024	△9.4	1,417	38.4	292	1.4
	이란	4,481	△28.4	4,162	△7.1	1,191	47.1
	오만	1,007	9.0	1,172	16.3	216	△25.2
	쿠웨이트	1,133	△28.5	1,976	74.4	225	△46.1
	이라크	1,973	5.7	1,798	△8.9	353	△22.4
	리비아	1,064	△1.1	893	△16.1	125	△56.3
중남미	베네수엘라	443	△15.3	236	△46.7	270	1,930.6
	에콰도르	920	7.4	812	△11.8	191	2.0
CIS	러시아	11,149	0.5	10,129	△9.1	1,022	△59.3
	카자흐스탄	1,074	21.4	907	△15.6	129	△44.9
	아제르바이잔	308	9.4	270	△12.6	41	△43.5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571	84.0	1,378	△12.2	176	△37.4
	콩고민주공화국	40	13.1	26	△35.0	6	24.0

자료 : KITA

□ 일부국가는 수입 제한정책 시행

- 지정학적 위험국가와 중남미 일부 산유국의 경우, 수입제한 및 외화유출 최소화 등 관련정책 추진 중

(리비아) 정세불안, 원유수출 감소, 유가하락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재정적자와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리비아 중앙은행은 **해외송금을 제한하거나 지연**

* 현지은행은 현지기업의 L/C(신용장) 개설이나 대금 송금을 거절

(베네수엘라) 외환보유고 감소로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의 외환배정 급감**

* '14.11월 유가하락과 함께 외채상환일 도래 이후 민간에 대한 외환배정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일부 민간 암시장을 통하여 외환을 활용하는 등 관련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

(에콰도르) 정부의 재정 악화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한 기존의 **쿼터제, 관세인상 등 수입제한 조치 강화**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15년 자동차 수입쿼터를 2만 2,277대(금액기준 2억 6,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7% 감축, 섬유·식품제조·인쇄기계 등 기계류 588개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15.1월)

5. 저가 소비재 선호현상 발생

- 산유국 재정부족은 국가 전반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물론,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저가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 선호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
 - 현지 가격경쟁력이 우월한 중국산이나 인근 유럽산 제품 수입 증가 추세
 - 쿼터제 시행 일부국가에서는 수입제한이 강화되면서 한국산 수입도 감소

○ 국별 수입시장 주요변화

이란	현지 최종소비자의 저조한 구매력으로 한국산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인 중국제품을 선호하면서 수입선을 변경 · '14년 이란의 對주요국 수입증가율(% GTA) : (중국)43.2, (UAE)26.4, (한국)8.34
알제리	'13년 기점으로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알제리 수입국 1위로 등극, 알제리·EU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유로화 약세 등이 작용하여 유럽산 수입수요가 지속 · '14년 알제리의 對주요국 수입증가율(% GTA) : (중국)20.2, (프랑스)1.5, (독일)31.8
카자흐스탄	유가하락에 따른 루블화 평가절하로 러시아 생산 수입브랜드 차량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카자흐스탄의 對러 자동차 수입은 확대, 반면 기아·쌍용자동차 등 우리제품 수입은 감소세 · '14년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자동차 수출증가율(%) : △18.9
에콰도르	전자제품·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쿼터제)가 유가하락 이후 한층 강화되면서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 · '14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증가율(%) : (전기기기)△55.4, (자동차 및 부품)△16.6

6. 산업다각화 관련품목의 수요 확대

- 석유 부국 GCC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산업다각화를 주창하며 석유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왔으며, 유가하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 예상
- 최근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으로 OPEC 회원국의 인프라·건설 등 프로젝트 관련 품목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원자로·보일러 기계, 의약품, 철강제품 등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
 - * '13년 OPEC의 對세계 수입증가율(%) : (터보제트·가스터빈 등)18.4, (의약품)18.3, (철강관)17.5, (철강구조물)16.4, (변압기)14.1

- 시장 특수성에 따라 정제유, 항공기, 시추대 등 수입도 최근 급증

* '13년 OPEC의 對세계 수입증가율(%) : (석유·역청유)33.5, (특수선박·시추대)132.9

< OPEC 회원국의 품목별 수입 >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 목 명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8703	자동차	31,660	△0.9	44,364	40.1	43,308	△2.4
2710	석유와 역청유	24,517	48.0	25,711	4.9	34,326	33.5
8517	무선통신기기	18,158	48.9	20,536	13.1	20,990	2.2
3004	의약품	10,596	13.3	12,487	17.8	14,772	18.3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가스터빈	6,976	△19.2	7,261	4.1	8,596	18.4
8802	기타 항공기, 우주선 등	4,172	△18.8	5,707	36.8	7,893	38.3
8481	파이프, 보일러 동체, 탱크 등	6,230	5.9	6,765	8.6	7,308	8.0
8708	자동차 부품	6,943	10.6	6,928	△0.2	6,918	△0.1
7304	철강관	5,773	△12.1	5,734	△0.7	6,734	17.5
8905	특수선박, 시추대나 작업대 등	2,661	75.8	2,700	1.4	6,288	132.9
8544	전선, 케이블	5,391	4.1	5,514	2.3	6,190	12.2
7308	철강구조물	4,043	△9.8	4,943	22.3	5,754	16.4
8413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4,836	14.3	4,874	0.8	5,417	11.1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4,692	△3.7	4,003	△14.7	4,566	14.1

자료 : ITC

* OPEC 회원국 :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카타르·UAE·알제리·앙골라·나이지리아·리비아·베네수엘라·에콰도르 등 12개국

o Post-Oil 시대를 대비한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다각화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발주 시 **현지생산품 우선구매 정책** (Local Contents) 실시, **독자 자동차 모델 프로젝트**(Saudi National Automobile Manufacturing; SNAM)에 따른 자체모델 개발 및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현지 제조업 육성

* Local Contents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현지 플랜트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기자재의 현지 생산품 구매 비율을 책정하고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정책

(러시아) '2015 위기대응계획안'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러시아의 높은 수입의존도 극복을 위한 **자국 제조업 지원 확대** 등 추진

* 산업다각화, 중소기업 지원, 자국 산업육성을 중점으로 60개 항목, 약 380억 달러 규모의 '2015 위기 대응계획안' 발표('15.1월)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의 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 건설(인프라 구축), 농업, 어업 등의 분야 발전 추진

II

우리의 대응전략

국제유가 하락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은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전략 △프로젝트 진출에 국별로 신중한 대처 △산업다각화 등 기회분야 발굴 △경제 위기지역 투자진출 등 새로운 전략 필요

1.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전략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은 산유국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인 원유판매 대금을 감소시키고 있고, 이는 재정지출의 축소로 이어져 현지 소비시장 위축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유가하락은 산유국의 현지화급락 사태로 이어지면서 현지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찾는 동인으로 작용 중
 - 그 결과,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사이에서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등 우리 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요하는 바이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출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국 등 저임금 국가 상품과의 가격경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수출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구사가 절실한 상황
 - 즉,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제품이 선진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밖에도 서비스·프랜차이즈 진출 등 수출형태의 다변화전략도 필요

2. 프로젝트 진출은 국별로 신중한 대처 필요

- 산유국의 주요 수익원인 원유의 가격하락이 '15년까지 지속되어 저유가 장기화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재원도 점차 바닥날 전망
 - 따라서 산유국 발주 프로젝트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주의 필요
 - 단, 석유 비축자금이 충분한 UAE·쿠웨이트·오만 등 일부 중동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유가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유가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산유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안전한 파이낸싱 활용 등을 통한 참여가 바람직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관의 자금공여 프로젝트 참여로 사업 지연이나 취소 위험성을 최소화
 - * (아제르바이잔) WB가 파이낸싱한 SAMAXEI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 중
 - * (이라크) 이라크 정부는 추진중 또는 입안중인 각종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하기보다 지역 금융기관 연계투자나 연지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 산유국 주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현지 민관합작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접근도 가능
 - *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킨조 이웰라(Ngozi Okonzo-Oweala)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규모가 60억에 달하는 가운데, PPP 방식의 참여를 강조함

3. 산유국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등 기회분야 발굴

- 최근의 유가하락은 GCC 등 산유국들이 Post-Oil 시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다각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
 - 산유국은 원유의존도를 낮추고자 유가하락 이전부터 제조업 등 비전통 분야에서 산업다각화를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음
- 이에 따라, 향후 산유국에서 국가경제발전계획이나 정부추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업·의료·ICT 등 국책사업

으로 추진되는 분야 진출과 관련품목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

- 사우디·쿠웨이트·이라크·러시아 등 정부추진 정책 등을 활용하여 진출
 -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탈석유산업화 인센티브 일환인 'Local contents' 정책 활용
 - * (쿠웨이트) '15~'19년 추진될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신도시·항만·도로 건설 등 SOC 분야 프로젝트를 대거 진행 예정, 정부지출이 불가피한 산업다각화 분야(의료·ICT·교육·신재생 등)의 프로젝트는 유가하락에 관계없이 지속 추진
 - * (이라크) UN과 공동으로 '30년까지 민간부문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각종 경제개혁 추진 예정
- 또한 정부의 외환우선 배정품목인 식품, 의약품 등 현지 수요 지속 품목에 대한 진출도 강화 필요

○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틈새시장도 적극 공략 필요

- 이라크 IS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전략·군수물자,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긴급대응 관련품목의 수요가 확대
 - * (이라크) '14년부터 탄약 및 총기류의 對이라크 수출 개시로 한국 對이라크 무기류 수출은 '14년 98백만 달러 기록,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이라크 정부와 T50 경공격기 공급에 대한 11억 달러 상당의 계약 체결로 '16년부터 본격 인도할 예정
- 정제시설 미비 산유국으로 우리의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수출 확대 가능
 - * '14년 주요 산유국의 석유·역청유(HS 2710) 對세계 수입증가율(%) : (이란)155.92, (러시아)76.88, (카자흐스탄)4.53, (베네수엘라, 1~10월)368.16
 - * 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이 원유 정제설비('14년 기준 하루 302만 2,000배럴 정제능력)를 보유하게 되면서 우리 석유제품의 차별화가 필요한 점은 유의

4. 경제 위기지역 투자진출 기회 포착

- 유가하락은 산유국의 부동산 가격하락, 임금하락, 현지화 가치절하 등 현지 투자진출에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들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
 -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 현지 제조 등 투자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 * (러시아) 중장비·자동차·건설·에너지 분야의 일본회사 70여개가 러시아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히타치社は 모스크바 인근에 건설기기 제조공장을 설립('14.6월)

참고자료

현지 바이어·진출기업 반응(인터뷰)

1.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

○ UAE·쿠웨이트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일부국가에 영향은 없음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UAE	진출기업 H社(건설)	UAE는 그간의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을 지속 중임. 유가 하락세는 최근의 현상으로 프로젝트 중단이나 발주 취소 결정으로 이어지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
	진출기업 S社(철강)	예멘·바레인 등은 프로젝트가 연기가 잦은 반면, UAE는 꾸준한 수요가 존재함. 종종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지연되기도 하나, 다른 물량으로 충당하는 등 UAE 내수와 우리 수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음
쿠웨이트	진출기업 K社(금융)	최근 현지기업으로부터 한국기업과 협력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종종 받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국기업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 유가하락과 수입 간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의약품·음료·금융 등 유가하락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분야도 존재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쿠웨이트	Hadi Pharmacy (의약품)	유가하락은 의약품 수입과 크게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수입에 장애가 되지 않음
오만	National bank of Oman (금융)	오만은 지난 10년간 높은 유가 덕분에 비축한 석유 및 가스 수익 비축자금이 있어 앞으로 몇 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최근 유가하락은 오히려 오만의 탈석유화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
알제리	NCA Rouiba (음료)	음료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 판매하는 품목의 특성상 현재로서 저유가가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 다만 저유가 장기화 지속 시 소비자 구매 욕구 저하에 영향을 주고, 결국 원부자재 수입이 축소될 우려
이란	Iran Chamber of commerce·Industries· Mines & Agriculture (이란 상의)	유가하락은 한국과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만약 대금결제에서 이란 중앙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수입상은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2. 프로젝트 시장 위축 및 구매력 감소

o 이란·오만 등 정부재정 부족국가의 프로젝트 추진 지체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이란	Tehran Sufa (철강제품)	현재 이란 정부는 석유·가스개발 프로젝트의 자체 진행할 정도의 충분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유가하락까지 겹쳐 계약이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음
오만	Falcon Insurance Co. (보험)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정부 발주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인근 GCC 국가 등의 외국투자 유입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쿠웨이트	진출기업 S社(금융)	신정유공장 프로젝트(NRP)는 유가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3월 입찰을 마감했으나 패키지 4, 5번의 재입찰 예정으로 전체적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 높음

o 건설 분야 등 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이라크	진출기업 R社(건설장비)	'14년 이라크 전력과 2억 달러 상당의 공사 및 물품공급 계약을 수주했으나, '15년 초 이를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음. 이라크 IPP 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나 IS 반군사태로 중단됨
아제르바이잔	현지진출 H社, S社(건설)	아제르바이잔 수력청 사옥 건축자금 '15.1~2월분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숨가르트 지역 비료공장 프로젝트 건설대금도 4개월 째 미지급 상태임

○ 구매력 감소에 따라 저가 제품으로 수입선 변경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알제리	El Bordj Medic社 (의료용품)	알제리 내 주사기 제조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자금 준비 중이었으나, 유가하락이 구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제품 구매계획에 심각한 차질 발생. 한국과의 거래 대신 스페인, 이탈리아 제품을 수입하거나 기존 한국기업과 당초 협의 거래량 축소 예상
카자흐스탄	Core IT Kazakhstan社 (통신장비)	작년부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3월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가격에서 더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산 수요 감소 전망
	Biotest Diagnostics LLP社 (의료제품)	국가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유가하락에 따른 예산 절감 영향을 받아, 가격 면에서 유연한 중국이 공급선 대안이 될 수 있음

3. 정부정책이나 규제에 의한 제약 확대

○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부재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알제리	Sarl Seroy社 (시설투자)	정부에 주사기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제안해 자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최근 유가하락으로 알제리 은행이 접수된 모든 투자계획에 우선순위를 매겨 선별적 지원한다는 변경된 방침을 확인함. 정부와 금융기관 현지투자 지원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 있음
에콰도르	진출기업 S社(건설)	현지 프로젝트 수행의 상당부분 자재를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음. '14년 해당비용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15년은 20%까지만 세금을 면제하고 80%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진출기업에 큰 피해 우려

○ 대출 제한이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제약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이란	Project Service社 (섬유기계)	경제제재 및 유가하락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정부는 직물기계 수입상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4월 이후 더욱 보수적인 정책으로 직물기계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에콰도르	진출기업 H社(플랜트)	수입규제 TBT(무역기술장벽) 발동으로 적합성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음. 합법적인 정부 발주 프로젝트 품목이라 수입은 진행되나, 통관이 지연되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4. 현지화 가치하락으로 수입 축소

○ 바이어의 대금지급 부담감 상승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리비아	Arbi Trading社 (자동차부품)	현지 달러 부족은 리비아 화폐가치를 절하시켜 바이어의 환차손 부담 발생, 대량보다 소량 위주로 수입을 하거나 수입을 보류하는 등 수입계획을 변경 중임. 리비아 행 운송보험료도 대부분 인상되어 부담 가중
러시아	진출기업 D社(자동차 부품)	'14년 말 제품을 러시아에 선적하였으나 당초 계약과 다르게 바이어가 환율 급증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국내 기업에 B/L(선하증권) 송부를 요청해옴

○ 현지화 단가인상으로 수입 급감

국가명	인터뷰 대상	주요내용
러시아	Nordwest社 (가스부품)	'14년 초 대비 루블화 환율이 100% 넘게 상승하여 수입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가스관련 프로젝트도 취소될 예정
아제르바이잔	Araz Motors社 (자동차부품)	1년 전부터 수요가 줄고 있어 기존 거래선 이외 신규 공급선을 찾지 않고 있음. 마나트화 평가절하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망중이나, 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목적 및 선정기준 〉

· 조사목적

- 장기화가 우려되는 유가하락이 산유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 산유국별 대응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신규 진출기회 발굴

· 조사내용 : 유가급락 이후의 현지 시장동향, 정부와 경제계의 반응, 유가하락이 한국제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바이어·진출기업 의견 등

· 조사방법 : 원유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산유국* 소재 해외무역관에서 현지입수 통계 및 정부의 공식 발표자료, 언론 등에 기반한 시장동향, 관련업계 인터뷰 등을 통한 조사

* 산유국 선정기준 : 세계 원유생산 점유율 상위 25개국 중 원유 수출액이 국가 GDP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유국 15개국 선정

· 조사대상국 : 총 15개국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리비아, 오만, 알제리
- 중남미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 CIS :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작 성 자

◆ 리야드 무역관	이성길 차장
◆ 두바이 무역관	박미진
◆ 쿠웨이트 무역관	송세현 과장
◆ 테헤란 무역관	박재영 과장
◆ 바그다드 무역관	곽현주
◆ 알제 무역관	오현택 과장
◆ 무스카트 무역관	한석우 관장
◆ 트리폴리 무역관	허진원 관장
◆ 모스크바 무역관	김하민 차장
◆ 알마티 무역관	김정훈 차장
◆ 바쿠 무역관	이명구 관장
◆ 카라카스 무역관	김지엽 관장
◆ 키토 무역관	차승민
◆ 킌샤사 무역관	홍성국 관장
◆ 라고스 무역관	편보현 관장
◆ 정부3.0추진팀	서진영 전문위원



Global Market Report 15-020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및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